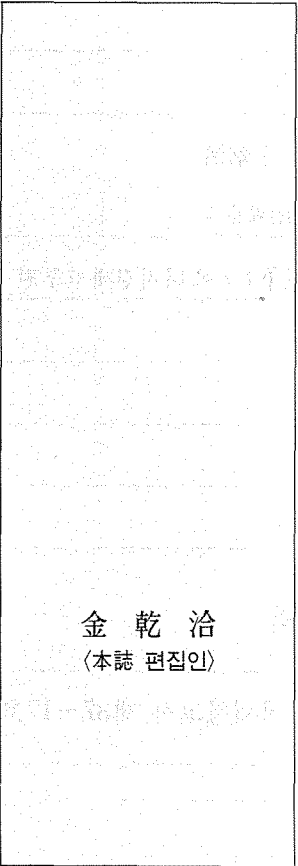


정부의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에너지자원부문계획(1987~1991)의 내용이 밝혀졌다. 오는 91년까지 총에너지수요는 연평균 5.1%씩 증가하는데 비해 석유수요는 연평균 4.4% 증가에 그치고, 석유의존도도 86년의 48.3%에서 91년에는 46.0%로 계속 축소되지만, 主宗에너지源으로서의 석유의 위치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6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산업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과 에너지低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精油産業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원리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둘째, 유연탄, 원자력등 石油대체에너지이용의 확대로 석유의존도를 계속 감축시키며,

셋째, 수입에너지의 경제적 확보로 에너지공급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네째, 시장경제원리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정책과 비교할 때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에너지부문의 단계적 자율화 확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계획은 최근의 국제화추세에 대비하여 에너지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각종규제와 간여를 극소화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촉진으로 기업의 自生力을 강화하고, 에너지源間의 상대가격구조의 적정화로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주도와 자율화로 이행되고 있으나, 석유산업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石油事業法에 의해 생산·유통·가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통제하에 있는 것이 석유산업의 韓國의 특색이다. 석유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와같은 규제와 관리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정부의 관리규제가 석유산업의 창의와 기업성을 약화시킨 폐단도 없지 않았다.

정유산업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시설 및 운용자금이 소요되는 자본·기술집약적 장치산업이면서 박리다매가 강요되는 低收益性 산업이다. 이는 정유사의 손익결과가 응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精油5社の 손익추이를 보면, 지난 80~85년 기간중 총2백58억원의 누적이익을 기

6 차계획기간중 에너지관련 總量指標

	단 위	1981	1986	1991	연평균변화율(%)	
					5 차기간	6 차기간
總 에너지 수요	千TOE	46,052	61,790	79,109	6.1	5.1
最終 에너지 수요	千TOE	39,307	50,756	64,086	5.2	4.8
에너지/GNP투입비중	TOE/85백만원 (1981=100)	0.856 (100)	0.757 (88.4)	0.682 (79.7)	△2.4	△2.1
에너지/GNP彈性值		1.5	0.75	0.66		
石油 의존도	%	58.4	48.3	46.0	-	-
1인당 에너지수요	TOE/人	1,189	1,486	1,794	-	-
1인당電力수요	KWH/人	915	1,313	1,746	-	-

〈자료〉 동력자원부

록, 연평균 4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부관리가격의 原價검토요령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이익률 10%와 비교할 때 연평균 1백78억원이 미달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중 타업종의 누적이익을 보면, 전기업은 1조 3천3백13억원, 가전제품업 1천6백45억원, 시멘트업 1천2백39억원, 화장품업 5백86억원, 연탄업 4백74억원의 누적이익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국내정유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국제원유가격상승 및 환율상승등 국내油價인상요인이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국내油價의 인위적인 왜곡은 수요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 油價의 정부부분비용이 과도해짐에 따라 국제가격에 비해 에너지源間 상대가격체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면에서 에너지 및 자본의 배분효

精油産業의 損益추이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精油産業 손익	△575	△246	529	15	145	390	258
자기자본 10% 이익	63	120	170	260	289	425	1,327
차 이	△638	△366	359	△245	△144	△35	△1,069

精油産業과 타업종의 손익비교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精 油 業	△575	△246	529	15	145	390	258
전 기 업	1,885	1,947	1,829	2,303	2,773	2,576	13,313
연 탄 업	188	39	33	54	100	60	474
가 전 제 품	△142	162	180	566	463	416	1,645
시 멘 트	71	△103	167	376	410	318	1,239
철 강	2	5	46	142	96	172	463
화 장 품	60	60	74	126	133	133	586

정제시설 고도화 관련투자소요(1984 - 1993)

(단위 : 억원)

사 설 내 역	건설기간	투자소요
● 중질원유 정제시설 6만 B/D ● 분해시설 3만 4천 B/D	84-88. 2	4,842
● 분해시설 3만 B/D ● 탈황시설 3만 B/D	87-89	3,600
상 동	91-93	3,600
● 분해시설 1만 B/D ● 탈황시설 2만 B/D	87-89	2,230
상 동	89-91	2,230
計		16,502

(주) 極東石油은 정제시설 투자비 포함

율이 저하됨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추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과 기업성장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 정유산업의 장기간의 저수익성은 결국 현재에 와서 석유산업의 구조개선과 시설고도화를 위한 투자소요를 일시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에너지절약기술이나 新에너지개발등의 연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석유수요輕質化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고도화에만도 총1조6천억원의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된다. 현재와 같은 정유산업의 이익수준으로는 석유류수요의 경질화에 따른 시설고도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동력자원부는 경질유와 중질유의 수요구조가 86년의 64대36에서 '91년에는 69대31로 그 수급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제시설은 아직도 Topping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脫黃시설

은 업두도 못내고있다. 정제시설의 과잉과 석유수급의 적정화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유는 앞으로도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절대물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석유에 代替할 경제성있는 新에너지가 개발·활용되기까지는 계속 主宗에너지源으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해서는 정유산업의 체질강화와 건전한 육성이 요구된다.

정유산업이 국내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비의 현실화와 적정이윤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정유산업의 당면문제는 정유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부문 전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또한 국가에너지공급비용과 총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